빛… 별… 낙조… '자연 감동' 속으로

가족들의 반가운 얼굴과 따뜻한 손길은 설날 귀성길의 고단함을 잊게 한다. 바쁜 일상에 벗어나 가족들과 함께 도란도란 못다 한 이야기 꽃을 피우면서 하늘도 올려보고, 겨울 햇살을 누리며 설날 연휴의 특별한 여유를 만끽해보자. 눈과 마음이 즐거운 여유를 가까운 곳에서 누릴 수 있다.

보성 빛의 축제

녹차의 고향 보성에서는 빛의 축제가 한창이다. 여린 녹차 잎의 푸르름으로 가득하던 보성군 회천면 영천리 보성 차밭 일원에 밝은 불빛이 가득 찼다.

겨울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오후 5시 30분 봇재다원과 다향각 전망대를 둘러싼 조명이 점등되면서 한 겨울 차밭 일대는 새 희망을 담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찬다.

발광다이오드 50여 만 개로 만들어진 높이 120m, 너비 160m의 초대형 녹차 트리는 '초록바다(차밭)', '붉은바다(철쭉)', '소리바다(판소리)', '청정바다(득량만)' 등 5색 바다를 주제로 불빛을 내뿜으며 한달음에 사람들을 맞이한다.

별을 흩뿌려 놓은 듯한 조명으로 둘러 쌓인 은하수 터널은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의 포토샵'등 이색 체험 거리도 마련됐다.

차나무를 따라 계단식으로 불빛이 퍼져나가는 녹차 밭의 색다른 야경을 감상하면서 희망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새해 소망을 빌어볼 수 있다. 조명은 자정까지 점등되며 빛의 축제는 오는 2월5일까지 계속된다.

강진 청자 박물관

문화답사 1번지 강진에서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 유산 청자를 만날 수 있다.

강진군 대구면에 사당리에 위치한 청자박물관은 지상 1층과 2층의 전시 공간을 갖추고 있다. 12세기에 청자를 굽던 도요지가 있던 박물관 곳곳에서 청자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소장유물로는 고려청자 완품 100점과 청자가마터에서 수습한 청자편 3만 여 점이 있으며, 연중 청자유물과 가마터를 관람할 수 있다.

24일에는 '명품청자'도 만날 수 있다. 매주 청자박물관과 전남 도예작가 등의 작품이 출품돼 열리는 토요경매는 이번 설연휴에도 변함없이 개최된다.

지난해 27회에 걸쳐 진행된 토요경매행사에서 출품작 343점 중 192점이 청자애호가들에게 낙찰됐다. 토요경매는 정상 판매가의 절반에서 시작해 참여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호가 경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겨울이 만들어내는 어촌의 이색 풍경도 접할 수 있다.

매생이 양식발인 대나무 기둥이 갯벌 빼곡히 자리하고 있는 풍경은 강진 마량 숙마에서 장흥의 내저리까지 이어진다.

곡성 섬진강천문대

섬진강 위로 총총히 떠있는 별을 통해 어린 시절별에 대한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고, 우주시대를 살고 있는 어린이들의 미래 꿈도 그려볼 수 있다.

남도의 젖줄 섬진강에 위치한 곡성 섬진강천문대는 우리나라 순수 과학기술로 제작한 600㎜ 천체망원이 설치된 주관측실을 비롯해 천체투영실을 갖추고 있다. 각종 천문자료 등이 전시되어 있어 아이들의 학습 공간으로 좋다.

천문대를 관람하는 데 1시간 정도 소요되며 매시 정각과 30분에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8m 원형돔 스크린을 갖춘 천체 투영실에서는 천체관련 영상물 관람 또는 별자리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주관측실에서는 600mm 주망원경을 오리온대성운을 찾아 볼 수 있다.

10인치, 8인치 반사굴절망원경 및 6인치 굴절망원경이 설치된 보조관측실에서는 겨울 별자리인 페르세우스이중성단,베텔기우스, 시리우스 등을 만나 볼 수 있다.

날씨가 맑을 경우 주간에는 태양 흠염과 흑점 등을 관측할 수 있다.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개관하며 설날인 26일은 휴관이다. (문의 061-363-8528)

순천만(순천만천문대)

매일 뜨고 지는 해의 여운이 순천만 물길 사이에 머물면서 장관을 연출하는 곳. 설 연휴에도 순천만의 생동하는 자연은 사람들을 맞이한다.

해안하구의 자연생태계가 원형에 가깝게 보전되어 있는 순천만은 지난 2003년 12월에 습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연안습지로는 전국 최초로 람사르협약에 등록됐다 .

기축년을 연 새해 첫 해가 연출하는 경이로운 순천만의 낙조도 만나볼 수 있다. 순천만의 S자형 수로는 우리나라 사진작가들이 선정한 10 낙조 중 하나로 유명하다.

살아 숨쉬는 자연이 선사하는 '별이 빛나는 밤'도 즐길 수도 있다. 지난 12월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에는 순천만 천문대가 문을 열었다. 국내 최초의 평지 천문대인 순천만 천문대는 순천만 자연 생태 탐조대 기능을 지닌 복합형 체험 공간으로 부지 320㎡, 연면적 963㎡에 달한다.

천문대는 1층 천체 투영실, 2층 과학 전시실, 3층 천체 관측실로 되어 있으며 오전 9시부터 밤10시까지 운영된다. 설날인 26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6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문의 061-749-3311)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곡성 섬진강천문대

강진 청자 박물관

순천만 일몰

보성 빛의 축제